

2019년 9월 2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 부각되며 상승 반납 나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과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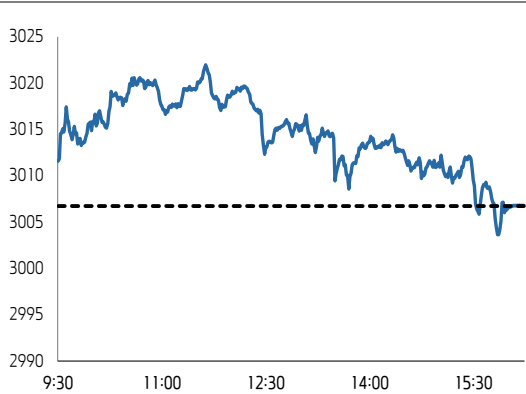
### 미 증시 장중 상승 요인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의 개별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미-중 실무급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상승폭 확대 요인. 그러나, FOMC 이후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하며 혼조 마감(다우 -0.19%, 나스닥 +0.07%, S&P500 +0.00%, 러셀 2000 -0.44%)

미 증시는 FOMC 이후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고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상승분을 반납하며 혼조 마감. 그러나 반등 요인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 나스닥의 상승세는 유지. 먼저, 미국과 중국 실무급 무역협상이 19~20 일 진행. 이런 가운데 중국 대표단이 다음 주 미국 관리들과 농장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미 농무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농업 생산을 보고 싶어하고 있다. 그들이 미국과의 선의를 쌓기 위한 조치로 믿고 있다” 라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관리들의 행동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스몰딜’ 타결 기대를 높였다고 평가.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증시가 상승폭을 확대한 점이 이를 방증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약가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을 발표. 그러나 지난주 관련 내용이 시장에 유출되어 영향력은 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체품인 복제약이 두개 이상 존재하지 않는 250 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매년 협상하는 권한을 부여. 협상을 거부하는 제약회사는 관련 의약품의 전년 매출의 75%의 벌금 부과 등이 포함.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공화당의 동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 더불어 약가인하 이슈는 이미 반영이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발표안 유출 이후 오히려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여 왔음. 오늘도 펠로시 의장 발표 이후 강세를 이어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0.35	+0.46	홍콩恒生	26,468.95	-1.07
KOSDAQ	645.71	+0.09	영국	7,356.42	+0.58
DOW	27,094.79	-0.19	독일	12,457.70	+0.55
NASDAQ	8,182.88	+0.07	프랑스	5,659.08	+0.68
S&P 500	3,006.79	+0.00	스페인	9,136.00	+1.15
상하이종합	2,999.28	+0.46	그리스	873.93	+0.15
일본	22,044.45	+0.38	이탈리아	22,128.24	+0.8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제약 바이오 강세 Vs. 소비, 철강 부진

MS(+1.84%)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알렉시온(+2.61%)는 전일 CFO의 사임으로 급락한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했다. 한편, Centene(+0.98%)과 Wellcare(+0.60%)는 합병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유나이티드 헬스(+0.97%), 에인테(+1.45%) 등 헬스케어 업종은 물론 머크(+1.14%), 일라이릴리(+1.45%) 등 제약주, 암젠(+0.31%), 길 리어드사이언스(+0.36%) 등 바이오 업종은 민주당의 약가인하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반면, US스틸(-11.16%)은 철강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을 발표하자 급락했다. AK스틸(-1.98%) 등 여타 철강업종도 부진했다. 콜스(-2.58%), 메이시스(-3.38%) 등 백화점 업체는 물론 갭(-2.23%), 노드 스트롬(-1.35%) 등 의류 업체 등 소비재 관련주는 가솔린 가격 급등과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했다. 넷플릭스(-1.70%)는 여전히 경쟁 심화 우려속에 부진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98%	대형 가치주 ETF(IVE)	-0.27%
에너지섹터 ETF(OIH)	-1.07%	중형 가치주 ETF(IWS)	-0.26%
소매업체 ETF(XRT)	-0.54%	소형 가치주 ETF(IWN)	-0.53%
금융섹터 ETF(XLF)	-0.46%	대형 성장주 ETF(VUG)	+0.09%
기술섹터 ETF(XLK)	+0.22%	중형 성장주 ETF(IWP)	-0.1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8%	소형 성장주 ETF(IWO)	-0.47%
인터넷업체 ETF(FDN)	-0.03%	배당주 ETF(DVY)	-0.46%
리츠업체 ETF(XLRE)	+0.3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69%
주택건설업체 ETF(XHB)	-0.1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8%
바이오섹터 ETF(IBB)	+0.18%	미국 국채 ETF(IEF)	+0.04%
헬스케어 ETF(XLV)	+0.47%	하이일드 ETF(JNK)	-0.12%
곡물 ETF(DBA)	+0.32%	물가연동채 ETF(TIP)	+0.20%
반도체 ETF(SMH)	-0.40%	Long/short ETF(BTAL)	+0.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1.89	-0.39%	+1.72%	+5.81%
소재	366.72	+0.15%	+0.43%	+3.42%
산업재	660.72	-0.50%	-0.31%	+4.83%
경기소비재	959.36	-0.22%	-1.19%	+1.74%
필수소비재	620.27	-0.00%	-1.14%	+0.21%
헬스케어	1,059.81	+0.47%	+0.32%	+0.46%
금융	469.98	-0.40%	+0.47%	+6.74%
IT	1,426.37	+0.22%	-0.31%	+1.81%
커뮤니케이션	171.45	+0.06%	-0.55%	+3.51%
유틸리티	322.88	+0.36%	+1.24%	+2.96%
부동산	243.62	+0.28%	+1.09%	+1.4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4% MSCI 신흥 지수 ETF 도 0.4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710 계약 순매수 했으나 0.30pt 하락한 274.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4.1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가솔린 가격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2%대 상승한 점도 소비 둔화 우려를 높였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자 미 증시에서 중소형지수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은 부담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반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중국 관리들이 다음주 미국 농장지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 농무장관은 선의가 느껴진다고 언급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이 이어졌다. 한편,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인 헤리스에 따르면 미 국민의 63%가 중국 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발표 했으며, 74%는 미국 소비자가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면 미국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 협상은 물론 다음달 초에 있을 고위급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 둔화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한국 증시는 차익 매물을 내놓으며 제한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 주택지표 개선 지속

8 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542 만건)이나 예상(538 만건)을 상회한 549 만건을 기록했다. 고용 안정과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9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6.8) 보다 부진한 12.0 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11.0)은 상회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5.8→24.8)가 부진한 가운데 고용지수(3.6→5.8) 등이 증가했다.

8 월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사우디가 원유 수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했다. 이는 사우디의 발표와 달리 9 월말까지 산유 능력 복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미 국방부가 중동지역에 전투기등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란 외무장관은 전면전을 언급한 점도 부담이었다. 다만, 중동을 방문한 폼페이오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이 알려지며 상승은 제한되었다. 한편, 가솔린은 공급 감소 가능성으로 2.3% 상승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강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EU 용커 의장이 브렉시트와 관련해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소폭 하락했다. OECD 가 2019 년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3.2%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전일 FOMC 에서 금리가 인하되었으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약화시킨 여파로 하락은 제한 되었다.

금은 매파적인 FOMC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94%, 철근도 1.9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13	+0.03	+5.52	Dollar Index	98.373	-0.19	+0.07
브렌트유	64.40	+1.26	+6.66	EUR/USD	1.1041	+0.10	-0.22
금	1,506.20	-0.63	-0.08	USD/JPY	108.02	-0.40	-0.07
은	17,884	-0.20	-1.61	GBP/USD	1.2526	+0.43	+1.55
알루미늄	1,800.00	+0.81	-0.17	USD/CHF	0.9927	-0.47	+0.23
전기동	5,788.00	-0.45	-0.77	AUD/USD	0.6792	-0.53	-1.08
아연	2,312.00	-0.34	-1.49	USD/CAD	1.3260	-0.22	+0.38
옥수수	372.75	+0.40	+1.50	USD/BRL	4.1675	+1.39	+2.56
밀	488.00	-0.31	+0.88	USD/CNH	7.1028	+0.28	+0.49
대두	893.00	+0.48	-0.28	USD/KRW	1193.60	+0.19	+0.03
커피	98.35	-1.99	-5.07	USD/KRW NDF1M	1194.14	+0.30	+1.0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84	-1.21	+1.25	스페인	0.245	+2.00	+2.60
한국	1.465	+0.80	+10.30	포르투갈	0.261	+2.40	+3.10
일본	-0.212	-3.00	0.00	그리스	1.360	-1.90	-17.60
독일	-0.507	+0.30	+0.90	이탈리아	0.883	+0.90	+1.80